

15 뛰어난 리더의 조건

•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어떠한 수단과 비도덕적 행위라도 결과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면 그것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몰라도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이 매일 잠들기 전에 [군주론]을 읽었다고 하니,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독재자에게는 이책이 바이블과도 같았을 것이다.

•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외교관이었는데 그 당시 피렌체는 주변의 여러 강국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있었다. 마키아벨리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서자인 체사레 보르자의 용기와 지성, 능력, 특히 결과를 위해 비정한 수단도 불사하는 자세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오직 도덕적이고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는 약했던 피렌체의 지도자들이 체사레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배우길 바랐다. 이 염원이 바로 [군주론]의 집필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마키아벨리는 어떠한 비도덕적 행위도 권력자에게 허용된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점은 마키아벨 리가 자주 오해받고 있는 부분이므로 기억해 둬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더 나은 통치를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행위도 허용된다고, 즉 그 행위가 더 나은 통치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일 뿐이다. 그도 미움을 사고 권력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부도덕성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 시대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 요구되는 리더십의 모습은 다르다. 어떤 상황에서 훌륭히 역량을 발휘한 리더십이 전혀 다른 국면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황에 따라 환영받지 못하는 결정이나 부하에게 상처를 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마키아벨리는 비즈니스든 사회조직이든, 혹은 가족 안에서는 장기적인 번영과 행복에 책임감으 갖고 있는 리더는 과감히 결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리더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때때로 고독하고, 암흑의 책임을 떠안는 일이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권력의 본질 일지도 모른다.